

'나는 SOLO' "이게 말이 돼?" 제작진 긴급 공지에 경악

등록 2022.03.04 10:55:02



[서울=뉴스시스] '나는SOLO' 방송 캡처. 2022.03.04. (사진 = SBS PLUS, NQQ 제공) photo@newsis.com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스시스]황지향 인턴 기자 = '나는 SOLO'(나는 솔로)가 또 한 번의 파장을 예고했다.

4일 SBS플러스-NQQ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'나는 SOLO'가 반전의 예고편을 공개했다.

공개된 영상에서 6기 솔로남들은 향량한 광야에서 저마다의 차를 끌고 나와 대기한 채 두 번째 데이트 선택에 돌입한다. 잠시 후 선택에 들어가겠다는 제작진의 외침에 3MC는 놀라운 장면이라도 목격한 듯 감탄과 박수를 보낸다.

실제로 솔로남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차 안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전조등을 켜 채 솔로녀들을 환하게 비춘다. 한 솔로녀를 본 상철은 거침없이 엑셀을 밟으며 돌진하고, 영수 역시 누군가를 향해 달려간다.

이런 가운데 제작진은 "잠깐만요, 공지사항이 있다"면서 3MC 데프콘-이이경-송해나를 긴장하게 만든다. 그동안 제작진은 '나는 SOLO'에서 결혼 커플이 탄생할 경우, 긴급 공지사항을 전달해왔던 터라 3MC는 귀가 쫑긋한다.

이어서 제작진의 공지를 전달받은 3MC는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는 등 온몸으로 경악을 표현한다. 데프콘은 표효하고 송해나는 "어떡해. 이게 말이 되는거야?"라며 입을 틀어 막아 궁금증을 더한다.

방송은 9일 오후 10시 30분.

©공감언론 뉴시스 hjhj7289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